

## 제4강 헤롤드 이니스와 월터 옹의 미디어 이론

### 제4강 1교시

#### ◆ 헤롤드 이니스의 미디어 이론

##### ▲헤롤드 이니스의 관점

헤롤드 이니스(Harold Innis)는 캐나다 출신이고 1953년에 암으로 죽었다. 이니스는 어렸을 때 역 근처에서 살면서 전국에서 생산된 산물들이 역에 집결해서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수송의 망을 보았고 거기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니스는 생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유통과 소통의 패러다임**에서부터 정치 경제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나중에 맥루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Bias of communication(커뮤니케이션의 편향)』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들이 단지 사고나 생각, 정보들을 전달하는 매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구조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성된 문화의 성격을 좌우한다. 즉 **미디어 자체가 그것을 사용했던 문화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문화를 미디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 ▲미디어의 두 가지 종류

이니스는 미디어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 1) time biased media

내구성이 있는 매체들, **돌**, 이집트인들에 암벽에 새긴 글자들, 오벨리스크, �핑크스, 시간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긴 하지만 공간적으로 확산이 될 수는 없다.**

돌에 새긴 지식은 굉장히 오래 남는다. 돌을 매체로 사용하는 문화에서는 지식 자체의 성격도 지구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영원불멸하고 변화에 종속되지 않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 2) space biased media

**종이**, 가볍고 공간적으로 확산은 쉬운 반면에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매체가 금방 닳아 없어진다는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지식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종이는 가볍기 때문에 **널리 확산이 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식도 그만큼 가볍고, 진보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시물라크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간을 정복한다는 것은 군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행정이나 법이 중요해진다.

예) 이집트에서 처음 왕조가 등장했을 때에는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다. 왕조가 형성된 다음에는 왕조의 지속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에 돌에 기록을 남기거나 미라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집트의 문명 자체가 시간 지향적이었다.**

→이러한 문화에서 나오는 지식은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 ▲미네르바의 올빼미

이니스에 따르면 한 문명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편중bias 없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문명이 가지고 있는 매체적인 편중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문명이 몰락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문명의 최고 전성기는 몰락하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bias를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문명은 몰락하는 것이다. 이니스는 이것을 **미네르바의 올빼미**에 비유한다. 이것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가 질 녘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는 헤겔의 유명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시간의 바이어스를 갖게 되면 결국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권력 매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변방에서 나타난다. 피억압자들이나 주류에서 이탈한 자들은 자기 고유의 매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집트의 경우엔 **파피루스**였다는 것이다.

→파피루스는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용도를 가졌으며 널리 공간적으로 확산 가능한 매체였다. 이니스는 테리다의 말을 빌려 **지식의 산포**라고 말한다.

⇒ 이니스는 하나의 미디어의 등장은 사회의 변혁이라고 말한다.

####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대립

이니스는 그리스, 로마의 예를 들며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대립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술문화는 시간적 매체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고 문자문화는 공간적 매체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다.

1) **구술문화**에서는 한번 말을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서 항상성을 가진다. 반면 널리 확산되지는 못한다.

2) **문자문화**의 경우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그리 내구성이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확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니스는 이렇게 **구술문화-시간 편향 미디어, 문자문화-공간 편향 미디어로** 등치하는 경향이 있다.

⇒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는 캐나다 토론토 학파에서 중요한 패러다임 역할을 한다.

그리스 사회의 경우 문자의 도입이 굉장히 늦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 첫째 장점은 문자문화는 추상의 문화인데 그래서 개념적 사유보다는 형상적, 이미지적 사유가 발달한 것이다. **그리스의 찬란한 시각예술들은 구술문화의 도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의 발달

문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고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을 장악하기 때문에 지식의 독점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권력이 형성된다.

문자문화는 독백적 성격이 강한데 비해서 구술문화에서는 중요한 결정은 말로 행해진다. 말을 쌍방향적인 것이다. 상대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학도 원래 말하기의 기술이었지 글 쓰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리스의 구술문화는 위계질서화된 권력의 도입을 막았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공화정은 토론에 의한 문화이고 민주적인 문화인데 그것은 그리스의 폴리스 같은 소규모 체제에서는 가능하지만 로마와 같은 제국에서는 불가능했다. **로마 초기엔 민주적 토론을 통해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제국이 점점 확장되면서 공간을 정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제정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문서를 통해 변방의 식민지에 까지 전달되는 정치체제였다.

⇒ 어떤 매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그 문화의 성격, 국가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것.

로마인들은 다행스럽게도 이집트인들로부터 파피루스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파피루스는 공간적으로 확산은 되지만 나중에는 'space bias'가 생겨 시간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 문명이 등장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시간적인 영속성의 문제를 기독교문명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 ▲중세의 시간 편향 문화

**중세문화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문화이다.** 중세에는 모든 경제들이 **장원** 단위로 고립되어 있었고 **자급자족 체제**였다. 그래서 중세 문명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는데 중세에는 양피지를 사용했다. **양피지**는 그 매체의 성격 자체가 수송은 어렵지 않지만 종이에 비하면 무겁다.

⇒ 양피지는 굉장히 귀중한 매체였는데 예를 들어 복음서 하나를 베끼기 위해서는 양 12마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중세의 도서관은 베껴 쓸 수 있는 원본의 저장소였다. 책 자체가 비싸고 공간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원 단위의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하지만 양피지는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매체이다.

## 제4강 2교시

### ◆ 월터 옹의 미디어 이론

#### ▲전자매체의 양면적 성격

근대에 들어와서 문자문화가 형성이 된다. 15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를 구텐베르크의 은하라고 부른다. 1950년대부터는 전자매체가 등장한다. 그리고 문자문화에서 다시 구술문화로 넘어간다. 옛날에는 정보를 주로 책을 통해 읽었지만 이제는 뉴스 등을 통해서 들린다.

이니스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구술문화를 환영하는 듯하다가 후기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다. 전자매체는 구술문화이고 구술문화는 time bias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전자매체는 공간적으로도 퍼지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가진다.

맥루언도 텔레비전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논조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전자매체가 가진 제국주의적 경향에 대해 경계를 한다.

#### ▲이니스가 맥루언에게 끼친 영향

미디어는 메시지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다.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문화의 성격이 규정된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미디어의 형식 자체라는 맥루언의 테제에 이니스는 큰 영향을 끼쳤다.

#### ▲편향bias의 문제

이니스도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문명이든 편향이 심화되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맥루언은 미디어는 문화의 편향이 아니라 감각의 편향을 낳는다고 한다. 오감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감각을 특권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편향이 발생하는데 원래 인간의 원시상태에서는 다섯 가지 감각을 평등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맥루언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전자매체가 이러한 감각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구술문화는 내부의 강한 커뮤니티를 전제로 한다. 맥루언은 지구촌global village에 대해 이야기한다.

#### ▲월터 옹Walter Ong

월터 옹의 직업은 신부였고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대립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전에는 하나의 문학, 즉 글자로 쓰여진 문학만이 있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문학 연구도 이루어졌다. 구술문화는 말로 전승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구술문화가 쓰여지지 않았을 뿐 문자문화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았다.

구술문학이나 문자문학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문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쓰여진 문학과 말해진 문학이 있다. 즉 애초에 이 두 가지 문학은 말해지는 방식 자체가 철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터 옹은 이제는 두 개의 문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술문학에서 문자문학으로 넘어가는 양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서사시를 공격하는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사시는 구술된 것인데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문학은 문자문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시의 관점에서 서사시를 공격한다. 대표적으로 그는 삽화적 구성을 피하라고 한다.

⇒ 다양한 에피소드들 중에서 하나를 빼어내도 전체 이야기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이야기에 관계없는 내용들이 마구 삽입되는 구성이 삽화적 구성이다. 서사시가 바로 삽화적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서사시가 삽화적 구성을 가진 이유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자문학의 관점에서 구술문학을 공격하는 것이다.**

#### ▲의식의 재구조화

구술이나 문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달라진다. 월터 옹에 따르면 **문자는 사람들의 의식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단지 말에 의존하느냐, 글에 의존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사고방식과 인식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강한 구술문화적 전통을 담고 있다는 텍스트이다.** 특히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라는 식으로 나아간다. 즉 중문구조로서 계속적으로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모두 and로 내용이 이어져야 하지만 후에 번역된 표준성경에서는 접속사를 넣어서, 즉 문자문화로 가공해서 번역을 한 것이다. 문자문화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 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다.

#### ▲첨가적이고 집합적인 구술문학

(1)**첨가적이라는 것은 삽화적이라는 것이다.** 구술할 때마다 계속 내용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2)**중속적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구술할 때처럼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문장들을 연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월터 옹에 따르면 **구술문학은 첨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술문학은 분석적이기보다는 **집합적**이다. 현대 사람들은 분석적으로 낱말과 낱말들을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반해서 옛날 사람들은 단어 하나에도 의례적으로 어떤 수사를 달았다.

예) 공주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주', 군인은 그냥 군인이 아니고 '용감한 군인'

이와 같이 **상투어구**가 **집합적으로** 등장한다. 구술의 상황은 항상 즉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상투적인 어구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술문학은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성**을 가진다. 루리아라는 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사는 공동체에 갔는데 왕가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기록을 해 두었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가니 왕가가 바뀌었고 노래의 내용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가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예전에 부르던 노래를 여전히 계속 부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